

CEO 동정

철도교통관제센터 방문



강영일 이사장은 5월 22일 구로에 위치한 철도교통관제센터를 방문하여 관계자들과 함께 현안 사항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나누고 안전에 대한 당부사항을 전달했다.

CEO 동정

호남본부 건설현장 방문



강영일 이사장은 5월 24일 광주송정역, 광주차량기지, PST 계도 현장 등 호남본부 관내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차질없는 적기개통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CEO 동정

충청본부 건설현장 방문



강영일 이사장은 6월 5일 영동역 구내 지하차도 신설공사현장 등 충청본부 관내 시공현장 현장을 방문하여 참마에 대비한 현장 안전사항을 점검에 더욱 철저한 관리를 주문했다.

국유철도재산 활용 5년간 557억원 수익 달성!

- 2017년까지 2948억원 수익 창출로 부채감축에 기여 -

시설사업본부(본부장 박인서)는 공공기관 정상화와 부채감축을 위해 5월 29일, 30일 양일간 '국유재산 수익창출 방안 마련 워크숍'을 충남 천안 소재 우정공무원 교육원에서 공단 재산분야 직원 약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행했다.

박 본부장은 재산분야 담당자들이 역량을 집중해 올해 재산수익 목표 557억원 초과 달성해 2014년도 수익목표 1265억원을 차질없이 달성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참석자들의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국유재산을 활용한 수익창출 방안을 발굴했으며 ▲국유재산 임대 시 '영업용도 수익계약' 일 경우 사용료를 현실화(수익연계로 7%, 9% 등 차등적용)하고 ▲재산사용료 미납을 방지하기 위해 '고액 체납자 등급별 집중관리제(금액별 등급화, 관리카드, 전자차 지정 등)' 도입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본부 관계자는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정책방향에 따라 국민에게 봉사하는 기관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본부는 지난해 철도 유휴부지와 폐선을 활용한 레일바이크 개발부터 임대료 512억원의 수익을 올린바 있고 2017년까지 총 2948억원(2013년부터 누적수익)의 국유철도재산 활용수익을 달성할 계획이다.



'더 빠르고, 더 안전하고, 더 편리한 철도'로 국민행복 창조

- '공공기관 정상화' 실천의지 담아 2020 뉴-비전 선포 -

공단은 공공기관 정상화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튼튼한 국가경제의 초석을 위해 5월 30일 새로운 비전과 5대 전략목표를 정립하는 '2020 뉴-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

뉴비전 선포식은 공단의 부채감축, 방만경영 개선, 비리척결이라는 국민적 염원과 시대적 요구사항에 따라 '공공기관 정상화'를 위한 공단 전 임직원의 실천의지와 성실한 목표 수행을 다짐하는 자리였다.

공단의 뉴비전 '더 빠르고 더 안전하고 더 편리한 Rail Network 실현'은 공단에 주어진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면서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한 단계 더 성장/진화하여 철도를 통해 국민행복을 실현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또한, 5대 전략목표는 국민교통편의 증진과 철도의 안전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부채감축이라는 시대적 요구사항을 반영했으며, 2020년의 목표인 ▲철도 총연장은 4,980km ▲현재 0.1%수준의 재해율은 0.05%이하로 절반수준 감소 ▲시설개량은 14.6%에서 80%로 5.5배

개선하고 ▲14조4천억원 사업수익으로 이자보상배율 역시 현재 0.7배 수준에서 1.05배로 개선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금융비용) : 기업의 재무상환능력을 보여주는 지표, 1.0이상이면 수익으로 금융비용을 감당한다는 의미

공단은 지난 3월 어려운 경영환경을 극복하고 새로운 변화의 방향을 찾기 위해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 대국민 8행시 공모전을 열어 많은 호응을 얻은 바 있으며, 4월에는 조직문화를 위해 전 임직원이 참여하는 KR하모니 워크숍을 개최한 바 있다.

강영일 이사장은 "이번에 정립한 뉴비전과 전략목표는 국민교통편의 증진, 철도의 안전성 강화, 부채감축이라는 시대적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설정되었다"며 "공단 전임직원은 한마음을 한뜻으로 비전과 전략목표의 성실한 수행을 통해 철도도 국민행복을 창조하여 희망의 새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상임이사 및 소속장 직무성과 계약' 체결

- 정부정책 이행 등 경영진 책임경영 강조 -

공단은 6월 5일 부채감축, 방만경영 해소 등 정부정책을 적극 이행하고 국민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공단의 '2020 경영전략 달성 의지'를 담아, 상임이사와 본사-실장 및 지역본부장과 2014년 직무성과계약을 체결했다.

특히 이번 성과계약에서는 지난 5월 8일 시행된 임원 및 소속장 직무청령계약과 5월 30일 공단 비전 선포식에서 강조된 경영진의 역할과 책임을 구체화해 단순 평가가 아닌 경영진이 목표의식을 가지고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CEO의 의지를 담고 있다.

이를 위해 경영효율화 및 최적화 건설을 통한 사업비 절감(5,876억원)과 철도자산의 창의적 활용을 통한 수익창출(1,239억원) 등으로 7026억원 부채감축과 방만경영 해소 등 정부정책과 공단의 미션 및 비전에 대한 진사전략을 계약내용에 포함했다.

이번 성과계약을 체결한 이수형 수도권본부장은 "공공기관에 대한 강도 높은 개혁을 요구하는 정부정책을 충실히 이행하는 동시에 예정된 철도건설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강영일 이사장도 "외부에서 가지고 있는 공단의 이미지는 부채과다, 방만경영 등 부정적인 부분이 많은 것이 현실"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성과계약을 통해 연초에 다짐했던 바를 다시 한 번 되짚어 보는 계기로 삼고 국민에게 사랑받는 공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경영진부터 책임감을 갖고 성과 창출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요청했다.

공단은 금번 체결한 성과계약을 바탕으로 임원 및 소속장 성과계약 이행실적을 평가하여 계약서에 따른 권한과 책임에 따라 성과급 차등지급, 인사 등의 임원평가에 활용될 예정이다.



철도부지 '위험매설물 임대기준 개선'으로 안전사고 예방

- 창의개선사례 품질경영대회에서 '최우수상' 수상 -

시설사업본부(본부장 박인서)는 5월 28일 서울 SETEC에서 한국표준협회가 주최하는 창의개선사례 품질경영대회 CoP*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 CoP(Community of Practice) : 조직내 당면문제를 체계적으로 접근하여 해결하고, 그 해결과정을 지식으로 공유하는 학습조직

본부는 '위험매설물 임대기준 개선으로 안전사고 사전 예방'이라는 주제로 학습활동을 전개, 철도부지 가스·송유관 매설정보 수기 관리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해당 정보를 전산화한 뒤 업무담당기간 정보를 공유토록 하고 결과물이나 임대 시 해당 정보를 도면과 함께 제공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했다.

또 가스·송유관로의 경우 안전을 위해 타 사설을 설치 시 30cm 이상 이격하도록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해당 면적도 임대면적에 포함, 14억 7천만원의 임대료를 추가 창출하는 등 일석이즈(-石二鳥)의 성과를 나타낸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아 최우수 수상팀으로 선정됐다.

이번 창의개선사례 품질경영대회는 관리개선, CoP, 트라즈 등 3개 부문으로 나누어 개최됐으며, 30개 분임조에서 250명의 분임원들이 참가하여 기업의 경영성과와 직결되는 원가절감, 품질 및 생산성 향상, 고개만족 등의 문제점을 찾아 해결방안 및 실행성 과를 낸 품질혁신 우수사례를 경쟁하고 공유했다.

강영일 이사장은 "미래는 멈추지 않는 자들의 몫으로 창조적 사고를 통한 끊임없는 도전 과정 속에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낼 수 있다"며, "이번 창의개선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을 계기로 공단은 앞으로도 CoP기반의 지식혁신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공공기관 품질혁신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